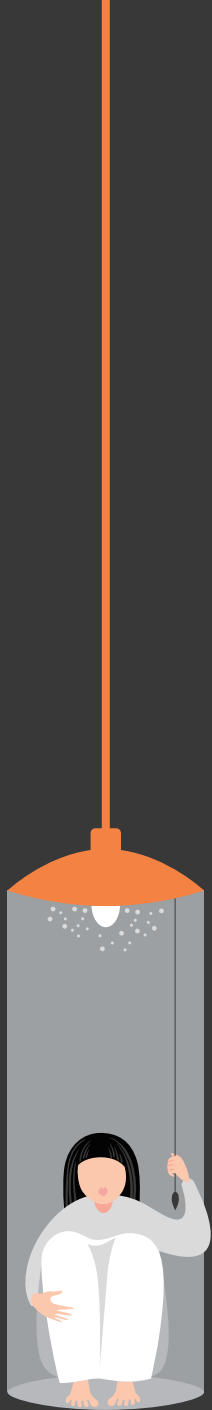


거친 파도도 잔잔한 바다다

2020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문집



거친 파도도
잔잔한 바다다



contents



열림터, 문집을 열다 ... 04

선하 ... 06

뚜벅뚜벅 07

생각을 생각하다 08

김정은 ... 12

괴물탕 13

하드코어 14

햇님 ... 16

어머니 17

나의 우울증 이야기 19

난 이미 죽었다 22

루빙뽕 ... 24

그립다 25

감정 26

열림터, 글쓰기를 마치며 ... 27



열린터、

문집을 열다

열다섯 번의 글쓰기 수업이 드디어 끝이 나는군요.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잘 끝낼 수 있을까?’ 걱정으로 시작했었는데 말이에요.
애쓰셨습니다.

우여곡절 중간에 퇴소하는 사람들이 있어 함께 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서 많이 안타까웠지만, 그만큼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애뜻하고 깊이있게 다가옵니다.

글을 쓰는 일은 때때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내밀한 이야기를 드러내서 말하고, 써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터인데 여러 어려움을 딛고 잘 끝낼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깨알같이 쓰여진 글 한 편 한 편에는제가 미처 읽어내지 못한 여러분의 모습이 살짝 보이기도 하네요.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어서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모두에게 흔쾌히 나누겠다고 해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열림터 식구들의 속엿 이야기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지네요.
모두에게 선물이 될 문집이 어떤 색깔일까 무척 기다려지고 궁금했습니다.
식구들의 맞춤법은 크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도 매력이나가요.
함께 해 주신 은유 작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08.05
열림터



안녕?? 나는 선하야. 나는 열림터에서
선하공주라는 말을 들으며 살고있어.
이 문집에서 내글이 보인다면 눈을 감아
줘. 왜냐하면 잘 쓰지 못했으니깐..ㅎ

선하

뚜벅뚜벅

하루를 뚜벅뚜벅 걷는 나의 두다리,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학원갔다가, 놀러갔다가, 산책갔다가, 거리를 구경하며, 빙글빙글 도는 공간, 빙글빙글 도는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이대역에 있는 미용학원을 갈때에는 힘들지만, 학원 계단을 밟자마자 활기를 되찾는다. 배우고 싶은 욕심으로 힘이 솟아오르는걸까? 나는 학원에서 헤어미용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다. 커트, 파마, 염색, 샴푸, 드라이를 배운다. 하지만 메이크업아티스트가 꿈이다. 오는 8월 31일날 메이크업 자격증을 배우러 다니게되서 기대가 된다. 학원에 도착해서 2층으로 올라가 체온을 재고 출석체크를 한뒤 4층 2교실에 있는 나의 교실을 찾아 간다. 좁디 좁고 높다 높은 계단을 올라갈때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벅차 오르지만 교실에 도착하고 4번째 줄에 앉으면 숨이 트인다.

산책을 가도 마찬가지지... 사람들이 활보하는 거리를 지나 산책을 가는길이 힘들지만, 막상 도착하고자하는 그 장소에 가면 편안해진다. 산책을 가면 답답했던 마음이 땀 뚫리고 활기찬 기분이 드는거 같아서 행복하다.

그러나 학원을 가던, 산책을 가던, 항상 돌아오게 되는 곳은 바로 “이곳”에 19년 11월달에 입소를 하게 되었다. 당분간 얼마나 많은 시간지 흐를지 모르는, 내가 몸을 편히 가눌수 있는 “이곳”. 내가 가장 자주 가는 곳이자, 하루 중에 가장 오래있는, 편안한 곳. 나는 이곳에 있을때 ‘나’라는 사람을 목격할 수 있었다. 같이 사는 생활인들과 수다를 떨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잘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고, 때로는 냉정한 사람이라서 놀랐다. 생각보다 정리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분장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에 대해 생각하는것도 신기하고 놀라운것같다.

생각을 생각하다

나는 살아가면서 생각을 한다. 맛있는걸 먹는 생각, 화장이 잘 되는 생각, 폭풍우가 치는곳에서 비를 맞기 싫을 정도로 엄청나게 맞는 생각, 공사중인 곳에서 철근이 내려와 내몸에 꽂히는 생각, 또는 길을 지나가다 본 남자의 이상한 눈초리에 대한 이유를 혼자 생각하거나 한다. 하지만 다 필요없다. 나는 요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오죽하면 내 꿈에 나와 나를 포근히 안아주는 꿈을 꿔올까..

6월 3일로 돌아가보면 내가 찾다. 200일을 넘게 사귀 그애가 우울해져서 찾다. 왜 그랬을까, 나만 생각해서 찬게 분명하다. 그애가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지니까 찬것이다. 내가 우울한게 싫어서 차버렸다. 지금은 떠나버렸지만 아직도 마음에서는 정이 들어서 못떠나보낸다. 난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랑였던것인가 보다. 내가 왜 못 잊는걸까? 생각해보면 18살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8살때 나는 지금 못 잊고 있는 남자친구와는 다른 남자애랑 사귀게 되었다. 인터넷 방송으로 만난 친구였다. 동갑이였고 먼저 고백을 받게 되어서 사귀게 됐다. 기숙사를 살던 나는 주말마다 남자친구네 집에 갔다. 그애네 아버지도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모든것을 펴부어 주셨다. 용돈이라던지 기숙사 들어가는날마다 차로 태워다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같이 놀러도 다니면서 말이다.

그애 또한 연애 초반에는 착했었다. 일어나보니 이른아침 창가에는 햇살이 나른하게 비추고 있었고, “잘 잤어? 배고프지..? 무화과먹자” 라고 하며 무화과를 스푼으로 퍼서 정성스레 먹여주던게 생각이 난다. 새벽에 집 앞에서 담배를 같이 피우고 끼안은채 동이 트는것을 같이 구경했다. 그때까지는 행복했고, 사귀면서 결혼까지 할수있을꺼라 생각했다.

산책을 가면 답답했던 마음이 뽕뽕리고 활기찬
기분이 드는 거 같아서 행복하다.



하지만, 매 주말마다 그애집에 간것이 화근이었다.

처음에는 그애의 형이 나를 강간 했다. 티비를 보며 엎드려 있는 나의 뒤로 와서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등쪽 브래지어와 다리미를 만지기 시작했다. 그때의 나는 '나쁜의도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참았다. 그리고는 오빠의 방으로 가서 서로 간지럽히면서 장난을 치다가 나를 덮쳤다. 싫다고 했지만 전전남자친구는 학교에서 아직오지 않아서 집에는 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안좋은일이 생겨서 그애에게 이야기했지만 그애는 "그러니까 왜 엎드려있었냐, 우리형이 그랬을리가 없다." 하면서 나를 나무랐다. 내가 그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겠다고하자 그제서야 둘다 미안하다며 '아버지에게 이야기만은 하지 말아달라' 하고 빌고 빌었다.

그리고 그애한테도 유사강간?을 당했다. 내가 새벽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때다. 187의 키와 150kg의 거구의 그애가 나에게 다가와 무슨일을 했던 것인지 다리미가 아파서 잠에서 살짝깨을때였다. 손에 무언가를 쥔 채, 나의 다리미에 힘껏 찢어넣었다 뺏다 반복하고 있었고, 난 아파서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참후, 유유히 그애가 사라지고 난 잠에 빠졌다. 다음날 새벽, 그애는 자고있고 나는 일찍 일어나보니, 밤까지만해도 김치냉장고 위에 포장도 뜯지 않은 바나나 한송이가 놓여있었는데, 아침에 보니 바나나 한개가 뜯겨서 없어져 있었고,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통 속에는 껌질조차 벗기지 않은 바나나가 한개 버려져있었다.

그외에도 트위터에서 새거인 여자용 면팬티를 사서 10개 이상 모아두고, 섹스하기 힘든데도 내팔을 꼭 붙잡고 강제로 지속하고, 집데이트는 커녕 집에서 섹스만하는 그런 사이였고, 2번씩이나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것을 들키는 등 이해하지못할 행동을 계속해서 해어졌다.

이런 동차를 만나서일까.. 그 다음에 만난, 내가 잊지 못하는 전 남자친구는 그애에 비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였다. 그래서 더 잊지 못하

고 있는거 같다.

수원, 전 남자친구가 살던 곳이고, ‘바이올렛 에버가든’, 난생 처음 남자와 단둘이 봤던 애니메이션 영화 제목이고, 홍대 길거리를 걸어도 전 남자친구와 걸었던 길이라 기억나고, 집에 있는 슬라임조차 같이 가서 직접 만든 슬라임이고, 내 옷장 속에 걸려있는 검정색 떡볶이 코트도 선물해준 옷이다. 내가 좋아하던 낮저밤이 스타일을 연기해주며, 데이트라는걸 경험하게 해준 첫 남자였다. 자꾸만 생각이 나지만 점점 희미해져간다. 생각을 생각하다보면 계속 생각날수있을까?? 계속 생각해봤자 헤어졌다는 현실이 나를 아프게해서 이젠 잊으려한다. 하지만 나한테는 힘들때 빛이 되어준 사람이였었다.



영화감독 소소하게 지망해보는 중. 인생에 열정도 감흥도 없지만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끝없이 새로운 걸 찾는 사람. 폐쇄 병동도 가보고 죽기 직전까지도 가봤지만, 희한하게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있음. 인생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살만해서 지금은 긍정적임. 사회적 약자를 다독이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써왔는데 실제로 그들을 마주하는 건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사람. 그런데 아마도 나부터가 사회적 약자. 행복해질 사람. 성공할 사람. 그게 내가 하는 내 소개.

김정은

괴물탕

사형 집행일을 맞이한 당신에게 큰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간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깊게 주무실 테니 유감은 아닙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은 쪽지에 적어주셨지만 찢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태웠어요. 제공될 음식은 제가 친히 정해드렸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앞으로 쪽 걸어가세요. 긴 복도 끝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에는 물 빠진 수영장 같은 게 있을 것이고 당신은 긴 사다리를 타고 그 음침한 지하세계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시겠지만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순순히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발을 헛디디지만 않으시길.

고생하셨습니다. 꽤 어둡지만, 춥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곳이죠. 주저앉아 울부짖고 싶겠지만 그곳은 점점 살갗이 타들어 갈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점차 오장육부에서도 땀을 흘리게 될 겁니다. 아마 이 편지를 짓밟고 계시겠죠. 그곳엔 이제 빠른 속도로 물이 차오르고 뚜껑이 닫힐 겁니다. 급하게 사다리를 잡은 두 손은 녹아내려 그대로 들려 붙었습니다. 당신의 괴성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습니다.

작업은 숙련된 솜씨는 아니나 당신을 처리하는 데 적합하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게 될 겁니다. 눈알과 혀가 다 익히지면 그것을 먼저 뽑아낼 계획입니다. 그다음엔 썩 쓸모없는 손톱과 발톱, 머리 가죽과 생식기를 뜯어낸 뒤에 내장을 모조리 굶어낼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해체되는 모든 과정을 볼 수 없는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혀로는 사죄와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길.



하드코어

피시방 구석에 있는 73번 좌석.
FPS 게임을 하던 도중,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 정신이 혼미해져 헤드셋
을 벗어던지고 고개를 푹 숙였다. 머
리를 쥐어뜯듯이 움켜잡고 심호흡

을 해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게임 소리, 초중학
생 남자아이들의 말소리, 라면 냄새. 속이 심하게 울렁거려 결
국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부여잡고 토악질을 해댔다.

나는 피시방을 나와 집으로 향해 걸어갔다. 이만 원을 넣어놓고도 피
시방을 다섯 번도 채 가지 않았다. 적어도 열 시간은 더 이용할 수 있었다.
게임을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즐기지도 않지만, 조금 시끄럽더라도 사
람이 많이 있는 곳에 있어야 덜 쓸쓸할 것 같았다. 편의점 앞에 멈춰 서 지
갑을 꺼냈다. 음료수라도 사 마실까. 오만 원 지폐가 여섯 장, 만 원 지폐는
스무 장 정도. 두툼한 지갑을 보고 다시 현기증이 올라왔다. 눈을 내리깔고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 충분한 돈이 결코 쓰고 싶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씻고 나와. 다 벗고 땀. 병신 새끼, 벌써 섰네. 기어 봐, 개새
끼처럼. 짓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나는 다리를 꼬고 침대에 비스듬
히 걸터앉아있다. 시선 아래에는 벗은 몸의 남자가 손을 뒤로 한 채 무릎
을 꿇고 앉아 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발딱대며 움직이는 성기. 바닥에
흠뻑러진 지폐들. 내 턱짓에 남자는 이로 지폐를 물고 내 손 위에 올려놓
는다. 수치스러운 거 좋아하지? 예뻐해 줘? 꼬리 흔들어봐. 남자는 어색하
게 허리를 흔들고, 뒤에 박아넣은 꼬리는 살랑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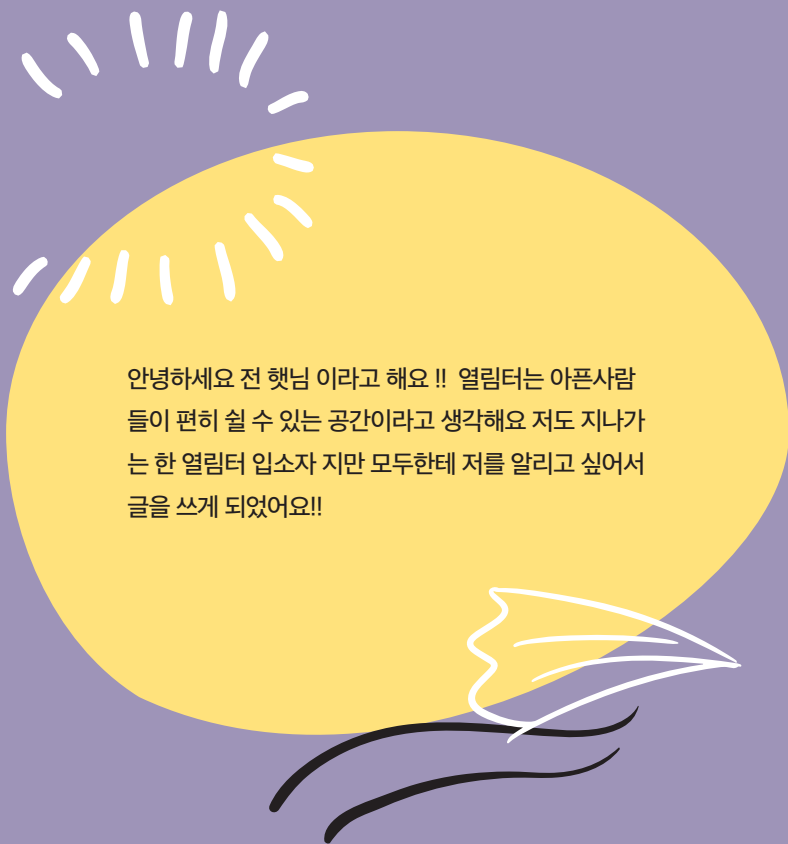
수치스럽게 해 주실 분, 욕 잘하시는 주인님 찾습니다. / 저는 여장을 좋아하는 걸레, 암캐입니다. / 입턴 스타킹, 팬티 직거레로 삽니다. 최소 삼 일 이상 입은 것만. 냄새 나는 게 좋아요. / 발 마사지 받으실 여주인님 있나요? 누워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 햄스터나 병아리 같은 작은 동물들 짓밟으실 수 있는 분. 폐이 세계 가능합니다. / 여중딩, 고딩만.

남자는 나가고, 방에는 역겨운 냄새와 지폐만 남았다. 창문을 먼저 열고, 손을 씻으러 갔다. 흘러내려 가는 젼과 묶은 액체. 거울 속 흘복을 입은 기계는 뼈가 시리도록 공허해 보였다.

붉은 조명 아래의 커다란 침대에 누웠다. 이상성욕으로 정의돼있는 이런 것들을, 어플 속의 남자들은 왜 이렇게 원하는 걸까. 몇십만 원의 가치가 있는 행위라고 느끼는 걸까. 한심하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태껏 스쳐 지나간 남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와 두꺼워지는 내 지갑을 보면 어느 정도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인 것 같기도 하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농담을 던지면,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대답하고, 분위기가 밝다. 책상 위엔 수업과 전혀 관련 없는 과목의 책이 올려져 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 보니, 종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교실을 나가고 있었다. 시간을 보니 점심시간이었다. 가방을 챙겨 학교를 나왔다. 집으로 가버리는 이 길에서 차라리 지나가는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차가 치지 않더라도 나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고 그대로 녹아내릴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높은 건물들 사이를 지나칠 땐, 저 옥상으로 올라가고 싶고, 횡단보도를 사람들 사이에서 건널 땐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현기증이 올라온다. 괜찮아. 지갑이 두툼하니까. 이 정도면 살만한 거 아닐까.

그러기엔 커터칼로 팔을 긁는 빈도가 잦아지고, 점점 무기력해진다. 나는 집에 들어와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책상 위의 약봉지를 잡아 뜯고 한 달치의 약들을 전부 옥여넣었다.



안녕하세요 전 햇님 이라고 해요 !! 열림터는 아픈사람
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나가
는 한 열림터 입소자 지만 모두한테 저를 알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햇님

어머니

엄마의 주름진 얼굴. 엄마의 청소하라는 잔소리. 엄마와 지내는 삶의 즐거움 가슴 한편에 남아있다. 하지만 난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중이다. 난 반항아였고 흔히 불리는 양아치였다 그때가 아마 중2 시절이었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엄마는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될 뿐이라고 생각하였고 중2병이 왔을 시기 엄마는 갱년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난 참 못한 딸이다. “엄마 눈에 피눈물 나게 할 거야” 툭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엄마의 가슴에 꽃혔을 것이다. 모자랄 것 없이 키운 소중한 사랑스런 내 딸. 엄마는 나를 가졌을 때 양수 터지지 말라고 3일 동안 침대에 거꾸로 누워 아이 목숨만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고 들었다. 난 그 마음을 그 고통을 다 알지는 못한다. 나겐 하루하루 주름만 늘고 목소리가 바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 무슨 힘으로 버텼을까 라는 질문에 “우리 딸을 보면 엄마가 힘이 생겨” 왜 이렇게 모진 말을 했는지 그때의 내가 점점 미워져 간다.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엄마가 조금씩 조금씩 아프고 시들어 간다. 엄마 나이 20살 꽃다운 나이, 시집와 아들을 뺏기고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에 출발선에 선 엄마는 강해지고 또 더욱 강인해져만 갔다.

오랜만에 본 엄마의 얼굴. 없던 주름이 짜글짜글 하고 없던 반점이 생기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젊은 청춘을 다 버리고 꽃다운 나이를 나에게 시간을 쪼구나 생각했다. 난 엄마를 위해 버티기 시작했다. 한 평생 자기 새끼한테 쏟은 정. 그리고 가슴앓이. 부모는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내 딸 안 아프고 올바르게 커달라는 엄마의 기도. 과거의 나는 엄마를 더 아픈 쥐구멍 속으로 밀어붙이기만 하였다. 어느 날 무당이 되겠다고 앞에 나타났다. 엄마에겐 아직 어리고 아이 같은 모습만 아른아른 거리는데 큰 짐을 준 거 같아 미안한 마음. 엄마는 절대 나쁜 길로 가지 않게 과거에 신한테 기도한 시간들. 무당이 되겠다는 말로 난 엄마를 절망 속으로 보내고야 말

왔다.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길인지 알기에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엄마는 나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나를 타이르기 시작했다.
난 누구 보다 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무당의 길을 포기 했고 학생으로 돌아
왔다.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우리 둘이 힘드니까 나 못 버티겠으니까 연
탄불피자” 그런 딸의 말에 엄마는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 “했님아 엄마
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만 있고 세상은 참 힘들어 우
리 딸 엄마 딸이니까 힘들 때 이를 더 꼭 물고 버티는 거야 할 수 있지 우
리 딸.”

그때 알았다 엄마는 58년 삶을 그 누구보다 고통 속에서 살았구나. 엄
마랑 웃고 떠든 날은 언제였을까? 고민에 빠진다. 내가 칼을 들고 죽자며
달려든 과거들. 난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부모의 마음은 피 눈물 속에 살
았구나 싶었다. 엄마는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울며불며 “할아버지 도와
주세요” 라며 울었고 그런 엄마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나는 내 아
픔을 숨기며 지냈다. 열림터 라는 곳에 막 들어 왔을 때 엄마를 만났다. 난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요즘 너무 행복해 학교 다니는 것도 좋고 언니들
이랑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워 나 대학 가게끔 노력중이야” 아니다 아니야
“난 죽을 만큼 힘들고 웃는 가면을 쓰고 살아 엄마 걱정하면 일이 잘 안될
까 봐 마음이 찢어질까봐 솔직히 말을 못했어” 마음속에서 뱀돌고 뱀도는
말. 차마 난 그 말을 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해 효도하겠다는 마음. 작을 마
을에 작은 집 한 채 마당이 있고 빨강 지붕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꿈꿔 본다.

나의 우울증 이야기

나의 질병 우울증에 대해 글을 써볼라고 한다. 중학교 2학년 난 따돌림을 당했다. 아이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난 겁을 먹었고 그 후 피해망상이 생겼다. 버스를 타고 집을 가는데 옆 의자에 앉은 남학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난 버스 종점까지 간 기억이 있다. 그 후 중학교 3학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우울증이 생겼던 거 같다. 겨울방학. 엄마에게 정신과를 가자는 소리와 함께 욕을 먹었다. 옛 사람들은 정신과를 생각하라고 하면 감금 또는 폭력을 쓰는 곳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 고심 끝에 난 정신과를 가게 되었고 우울증 초기증상 이라고 의사 쌤께서 말씀하셨다. 그때부터였다. 우울증 약을 먹게 된 날... 고등학교 입학 후 첫 자살 시도, 있는 약을 몽당 먹고 학교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학교는 발각 뒤집혔고 난 첫 번째 정신과 입원을 하게 되었다. 학교 결석 일수가 많아서 자퇴를 하게 되었고 두 달에 한번 꼴로 입원하기 시작했다. 그때의 난 말도 안했고 음식조차 먹지 않아 콧줄을 통해 밥을 먹었다. 매일 2시 면담시간. 난 의사 쌤의 말에 대꾸도 조차 안했다.

“오늘 기분 어때요?”

‘....’

“우울한 감정은 어때요?”

‘....’

“지금 무슨 생각해요?”

혼잣말로

‘인류 멸망...’

의사는 그 말에 꼬치꼬치 물으며 내가 대답하길 기다렸다.

내게는 너무 큰 할머니의 빈자리. 죽으면 할머니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



내게는 너무 큰 할머니의 빈자리. 죽으면 할머니의
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도 안 된 생각.

다는 말도 안 된 생각. 난 할머니가 그립고 그립다. 태어날 때 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는 날 키워 주셨다. 그 후 난 성폭행을 당했다. 그로인해 종종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 해리 기억상실 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의 기억은 3일에 한번 폴로 초기화가 되고 엄마의 얼굴조차 기억 해 내지 못했다. 병원에서 소동이 이러나 경호원이 우르르 오고 의사들도 우르르 왔었다.

‘여긴 어디예요? 제가 여기에 왜 있죠?’

라며 소리를 질렀다. 안정실 cctv 가 있는 곳에 팔 다리가 묶인 채 주사를 맞고 3일 만에 깨어났다. 나의 담당의사는 내가 여기에 왜 있는 지를 설명해주고 기억이 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기억이 나는 순간 소리를 지르며 통곡했다. 매번 3일에 한번 폴로 그러니 의사는 기억을 잊어버릴 때 마다 나의 감정일기를 보여주곤 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감정일기를 쓰곤 한다. 나의 우울증 이야기 지나고 보면 너무 힘들었던 거 같다. 지금의 나 웃음도 되찾고 공부하며 학교도 다니지만 할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쓰리다.

난 이미 죽었다

2058년 10월 46일 10시43분 숨이 멎었다. 의사들의 심폐소생술 소리. 엄마의 통곡 소리. 난 숨이 멎은 나를 보고 있었다. 이것이 사후세계인 것인가?.. 엄마와 의사는 내 얼굴에 흰색 천을 덮고 난 그렇게 시체 안치실에 들어왔다. 3일후 발인을 하였고 내 몸은 뜨거운 불속으로 들어갔다. 크고 작은 뼈만 남은 채 아주 곱게 갈렸다. 그 후 난 유품함에 들어갔다.

‘엄마 엄마 나 좀 봐봐 나 여기 있잖아’

엄마는 나의 얘기를 듣지 못한다.

‘한이 많은 영혼은 떠돈다는데 내가 그 영혼인가?’

난 살아생전에 영혼을 보는 화경 이였다. 나를 알아보는 또 다른 무속인 언니에게 찾아갔다.

‘언니 나 죽었어.. 나 살고 싶어 도와줘’

“너 여기서 떠돌기만 할 거야? 이제 떠나야지..”

‘엄마 혼자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

병들어 거동이 불편한 엄마를 두고 갈 순 없었다. 나의 죽음은 타살이였기에 범인을 찾고 다녔다. 죽기 전 난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살아생전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손 한번만 붙잡고 싶었다. 그 남자가 운영하는 카페로 찾아갔다. 나 없이도 밝게 웃는 모습이 너무 슬펐다. 손을 잡는 순간 남자는 “으아아아”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내 눈에선 눈물이 또르

르 흘렀다. 범인은 내가 사랑하던 사람 이었다, 술 먹은 나를 유인해 집에 오게 만들고 화장실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었다. 난 곧장 경찰서로 뛰어 들어 갔다. 범인은 완전 범죄로 DNA 도 나오지 않았다.

‘저 사람이 날 죽였어요. 저 사람이 범인이예요’

나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 오늘은 나의 49재이다. 난 이제 떠나야만 한다. 하늘의 신 옥황상제에게 신판을 받으러 갔다.

‘저 너무 억울해요 병든 엄마를 두고 떠날 순 없어요..’

너무 간절했기에 옥황상제는 내게 다른 이의 목숨을 주었고 난 다른 여자의 몸에 들어가 곧장 경찰서로 뛰어 들어갔다.

‘범인은 ooo예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미제사건은 밝혀졌고 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안녕? 나는 15살 꽃다운 나이에 꽃을 피우기
전 험난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열림터라는 땅
에 머물러 꽃을 피울려하는 루벙벙 이라고 해.

루벙벙

그립다

매일 아침마다 친한 친구들과
손잡고 등교하던 그때가 그립다

쉬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친구들과 하하 호호 떠들던
그때가 그립다

점심시간만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누가 먼저 가나 그 긴장 되는 순간이
그립다

학교가 끝나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늘 그렇듯이 학교 앞 문구점으로 달려가
과자 한 개 씹 들고
복잡한 무리 속에서 꾸깃 꾸깃 뭉개진
얼굴을 대고 우렁차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말하던 그때가 그립다.

이제는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하하 호호 하던 그때가 빨리 오면 좋겠다.



감정

감정은 쉬우면서도 막상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 나는 그 동안 ‘감정’이라는 것을 숨기느라 급급했지만, 감정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최근에 깨달았다.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힌다.

언제는 화를 냈다가도, 언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은 우리 옆에 있으면서 늘 괴롭힌다. 나는 감정한테 나오지 말아달라고 수없이 부탁을 해봐도 감정은 늘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나를 괴롭혔다. 난 결국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더 이상 감정을 숨기려고 급급하지 않고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드렸다. 예를 들어 예전에 나는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이런 생각과 말을 하면 난 내 감정을 숨기고 ‘넌 왜 그래?’ ‘여태까지 잘 참아 왔잖아’ ‘너 답지 않게 왜 그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더 숨기고 자책하는 시간들이 많았었다. 난 그런 예전의 나를 보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지금 너가 느끼는 감정, 생각 다 잘못 된 것 없고, 그저 감정을 잘 몰라서 그래. 한 번 감정을 숨기지 말고 인정해보는 것이 어때?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난 누구보다 못난거 없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도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지내는 거야. 예를 들어 누구 하 나를 기준으로 재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난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재도 재 기준이 있고 생각 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어때? 쉽지? 앞서 내가 언급했던, 감정은 쉬우면서도 막상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 이렇게 감정을 숨기고 말했을때는 어려웠었지? 그럼 이제 숨기지 말고 한 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게 어때? 그냥 나로 받아들이는 거야.”

열린터, 글쓰기를 마치며

5월 봄날, 우리는 작은 노트 한권씩 나눠갖고 수줍게 ‘글쓰기 수업’을 위해 둘러앉았습니다. 열다섯 번의 수업을 지나왔는데, 그사이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들 관계에도 여름나 무들처럼 깊어진 것 같습니다.

어느새 헤어지는 게 아쉬운 마음이 되었으니까요. 지난 수업에서 주고 받은 말들, 눈빛들, 생각들, 감정들, 글에 담아낸 이야기들, 소중한 간직하겠습니다.

정은, 매번 놀라운 상상력을 펼치는 글을 ‘일필휘지’로 써주었지요. 덕분에 현실세계에 갇힌 우리들의 좁은 우주가 확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생들이자 동료들의 글에 대해 애정어린 말로 정확한 지적을 해줄 때마다 너무 멋지고, 또 든든했습니다. 어릴적부터 단련된 글쓰기 내공 백단 정은이 앞으로 써나갈 글을 독자로서 조용히 기다릴게요. 꼭 신춘문예라는 등단 형식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글을 쓰면 정은의 글이 세상으로 뚫고 나오리라고 믿어요.

선하, 예쁘게 단장한 모습으로 글쓰기 수업에 앉아서 단정한 글을 쓰고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선하를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업 자료나 다른 동료의 글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뜻이냐고 질문해주어서 참 좋았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건 쉬운 일 같지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용기 있고 차분하게 조금씩 자기 앎을 확장해나가는 선하에게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질문하는 사람 선하’로 멋지게 살아가길 바라요.

햇님, 저는 햇님이 쓰는 글을, 마치 좋아하는 드라마 기다리듯이 기다렸습니다. 수업 전에 미리 글을 써오는 모습에서 햇님이 글쓰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렇게 미리 써온 글을 읽으면서 햇님은 이미 작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아픔, 상처, 고통을 가감없이 터놓는 사람 햇님은, 자신에 대한 집중력과 동료에 대한 믿음과 세상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갖춘 사람입니다. 햇님의 열정에 저도 전염되고 감화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뽕뽕, 자기소개가 곧 작별인사가 될만큼 짧은 만남이었지만, 시적인 자기소개의 여운을 기억하겠습니다. 꽃다운 나이 열다섯. 꽃피울

시기가 되기 전까지 험난한 여행을 하다가 꽃을 피우기 위해 열립터라는 땅에 정착했다는 말, 너무 아름다워서 외우고 싶습니다. 주변에 좋은 샘들, 언니들과 예쁜 꽃 피워나가길 응원해요.

순유, 수업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순유가 써주는 이야기들도 옛날이야기(!)처럼 재밌었고요. 추억 소환도 되면서 우리가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작은 목소리로 크게 품어주는 순유의 존재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은유 드림.

잔 거친 잔친 파도도 한 바다다

2020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문집

발행일	2020년 8월 18일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발행인	정정희
편집자	류수민
저자	선하, 김정은, 햇님, 루뽕뽕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 366-24), 2층 (우)04072
전화	02-338-3562
홈페이지	www.sisters.or.kr
메일	yeolim94@hanmail.net
디자인	아리에뜨(ariette.co.kr)



거친 파도도 잔잔한 바다다

2020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문집

유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합정동 366-24) 2층 (우) 04072

부설 쉼터 열림터 02-338-3562 사무전화 02-338-2890

상담전화 02-338-5801 팩스 02-338-7122

이메일 ksvrc@sisters.or.kr